

良齋 李德弘의 時代와 生涯

李 秉 休*

• 目 次 •

- | | |
|-------------------|------------------|
| 1. 머리말 | 4. 李德弘의 家系와 師友 |
| 2. 支配勢力의 葛藤과 그 推移 | 5. 李德弘의 出處와 現實對應 |
| 3. 士林政治의 成立과 展開 | 6. 맺음말 |

1. 머리말

歷史上에 생존했던 인물의 평가는 그 시대의 성격을 인식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의 시대가 그의 삶을 규제할 수도 있고, 그의 삶의 모습을 그리는데 작용하는 그의 思想이나 그 삶 자체가 자신의 시대나 후대에 끼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 상에는 시대의 규제만 받고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한 채 소멸한 多衆이 존재했는가 하면, 흔적은 남겼으며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사라진 인물도 허다하다. 그리고 충분히 영향을 끼칠 만큼 커다란 足跡을 남기면서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남은 인물도 많다. 歷史學은 그런 인물의 삶의 모습, 곧 그의 現實認識 및 對應姿勢와 그 產物인 그의 思想을 살피고, 이 모든 것이 그 시대가 지니는 성격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究明하는 데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歷史와 人間의 이같은 對應關係를 설정해 볼 때, 朝鮮前期란 시대는 어떤 성격의 시대였으며, 그 속에서 살아 간 士大夫의 삶, 그 중에서도 在地的 基盤 위에서 성장하여 마침내 士林政治를 실현한 士林派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나를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李德弘은 16세기 중엽에 태어나 그 世紀가 바뀌기 직전에 죽은 嶺南士林派 家門의 후예이다. 成宗 중엽에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여 기존 勳舊派와 갈등을 빚게 된 士林派는 후대로 내려 오면서 자체 내에서도 일정한 차별성을 지닌 두 계열이 內在的으로 생겨나게 되었다. 초기에는 그다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보다 뚜렷해지는 이 차별성은 出處觀, 現實認識과 對應 곧 改革意志 등에 투영되어 나타났는데, 이런 여러 모습

* 경북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들이 李德弘에게서는 어떻게 形象化하는지를 살피는 것도 또한 뜻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다만, 그가 仕宦한 기간이 매우 짧은 탓으로 史料上에 많은 기록을 남겨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의 측면에서 그의 正體性을 밝히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그에 따라 그의 역사적 기능이나 위상을 조망하는 것도 매우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역사학의 범주에서 쓰여지는 이 글은 그 자신의 구체적인 모습을 밝히는 일보다는 그 전제가 될 그의 시대와 그 성격을 밝히는 데 보다 큰 무게를 둘 수밖에 없다. 즉, 사상체계에나 문학세계 등 구체적인 그의 모습을 그리는 밑그림으로서의 의미 정도를 부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支配勢力의 葛藤과 그 推移

李德弘은 勳舊派와 士林派 두 세력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태어나, 사림과 주도의 士林政治가 軌道에 올라 그 속도를 더해 가던 시기에 中壯年期를 보냈다. 그러므로 그의 생애를 살피기 위해서는 士林派가 勳舊派와 맞게 되는 葛藤의 모습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우선 살펴 볼 필요가 있다.¹⁾ 朝鮮初期 향촌에 은거하여 성리학의 탐구에 몰두하던 士林은 金宗直·金宏弼·鄭汝昌 등을 중심으로 嶺南·畿湖 두 지역 사림 간의 학문적·인간적 접촉을 심화시켜 나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成宗 16년(1405) 이후 훈구세력에 대응되는 정치세력, 즉 사림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갔던 것이다.²⁾ 정종대 중반 이후 중앙정계에 집중적으로 진출한 사림파는 훈구세력 기용의 부당성 논박, 昭陵復位の 獻議 등 과감한 언론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연산군의 즉위로 이들이 가진 한계성이 노출되면서 훈구파

1) 이러한 과제를 구명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李樹健,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出版部, 1979.

鄭杜熙, 『朝鮮初期 政治支配勢力研究』, 一潮閣, 1983.

李秉休, 『朝鮮前期畿湖士林派研究』, 一潮閣, 1984.

李泰鎮, 『韓國社會史研究』, 知識產業社, 1986.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一潮閣, 1995.

李秉休, 『朝鮮前期 中央權力과 地方勢力의 對應』, 『國史館論叢』12, 1990.

_____, 『朝鮮前期 支配勢力의 葛藤과 士林政治의 成立』, 『民族文化論叢』11, 1990.

_____, 『慕齋 金安國과 改革政治』, 『碧史李佑成教授定年退職紀念論叢』, 1990.

_____, 『中宗·明宗代 權臣·戚臣政治의 推移와 晦齋의 對應』, 『李晦齋의 思想과 그 世界』,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92.

_____, 『16世紀 前半期의 政局과 冲齋 權撥의 對應』,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 1994.

_____, 『16世紀 前半期의 政局과 龔巖 李賢輔』, 『龔巖 李賢輔의 文學과 思想』, 安東大學校 安東文化研究所, 1992

2) 李秉休, 『前揭書』, pp.34~41.

로부터 戊午·甲子士禍의 두 차례 탄압을 받게 되었다.

中宗反正으로 중앙정계에 재진출한 사림파는 중종 9년 趙光祖의 정계 진출 이후 기호지역 출신이 압도적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그 세력은 중앙정계에서 급성장을 보였다.³⁾ 己卯士林은 靖國功臣 중심의, 그리고 훈구대신 주도의 정권 하에서 빛어지는 각종 정치적·사회적 비리를 척결하고 至治主義를 실현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주창하였다. 이는 곧 훈구파는 물론 온건적인 대신, 국왕의 저항을 야기하였고, 결국 僞勳削除 사건을 계기로 사림파가 크게 희생되는 己卯士禍가 일어났다.

기묘사화 이후 南袞·沈貞·金安老 등으로 이어지는 훈구대신들이 정국을 주도하였고, 소수의 사림파가 정부의 일각에 고립되어 있을 따름이었다. 그리하여 군주나 집권세력의 사림파에 대한 인식은 士類를 가리켜 '光祖의 餘習'이라 지탄한다거나, 언론을 '光祖餘習之說'⁴⁾이라 배격한 데서 잘 나타나듯이 극히 부정적이었다. 중종 32년 김안로 실세 이후 실권은 다시 훈구파에게로 돌아갔으나, 이 시기에 있어서는 앞 시기에 비해 사림파의 진출이 다소 활발해졌다. 金安國·金正國·權檉·申光漢 등이 재서용되었고, 그 이외의 여러 사람에게도 직첩이 환급되는 등 사림파 재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신들의 완강한 반대로 조광조 등 己卯人에 대한 신원, 복권은 당시로서는 간단히 이루어질 수 없었고, '枝葉之人'의 伸雪과 재등용만이 허용되는 상황이었다.

중종 말기의 이같은 정치적 상황은 인종대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다만, 중앙정부의 구성에 있어서 사림파의 비중이 좀더 커졌는데, 이는 이후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파의 복권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만든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 뒤 인종의 우환이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조광조 등 己卯人의 복직과 賢良科의 복과 및 급제자의 등용이 성취되었다.⁵⁾ 이러한 가운데 인종의 외척과 명종의 외척을 중심으로 한 세력 간의 갈등이 생겨나고 있었다.⁶⁾ 명종의 즉위와 함께 명종을 둘러싼 외척 尹元衡과 권신 李訥은 자신들의 세력을 보강하고 상대세력을 견제함으로써 그들 주도의 정치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乙巳士禍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사림파는 일대 반격을 받았고, 상대세력은 그 과정에서 衛社功臣에 책록되었다.⁷⁾

權臣 李訥와 威臣 尹元衡이 주도한 공신중심의 지배체제는 애초부터 구조적 취약점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이를 보강하는 방안으로서 사화를 확대시키는 방향을 택하였다. 그에 따라 기묘인의 복권은 백지화되었고, 賢良科도 다시 罷榜되었다.

3) 同上, pp.80~97.

4) 『中宗實錄』71, 26年 10月 甲辰條 및 『同書』72, 26年 11月 己巳條.

5) 『仁宗實錄』2, 1年 6月 庚申條

6) 金字基, 「16世紀 威臣政治의 展開와 基盤」,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李宰熙, 「朝鮮明宗代 威臣政治의 전개와 그 성격」, 『韓國史論』29, 1993

7) 禹仁秀, 「朝鮮 明宗朝 衛社功臣의 性分과 動向」, 『大丘史學』33

이후 척신정치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설사 소수의 사림과 인물들이 정부 일각에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사림과의 의지가 정책 결정에 반영될 수는 없게 되었다. 척신지배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沈連源·沈通源 등 또 다른 외척 세력이 가세함으로써 그 체제는 더욱 굳어져 장기화의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 이에 명종은 명종비의 외삼촌인 李樛를 등용함으로써 윤원형의 독주체제에 일정한 견제를 가하려 하였다.

戚臣政治는 명종 18년 이량이 원찬되고,⁸⁾ 명종 20년 문정왕후의 죽음에 이은 윤원형의 패사로 권척들이 중앙정계의 핵심적인 지위에서 축출됨으로써 끝이 났다.⁹⁾ 그리고 사림학자인 李恒·成運·韓修·南彦經·林薰·金範 등의 遺逸에게 6 품직을 제수, 招致하는¹⁰⁾ 한편, 사림의 종장인 李滉이 명종이 죽기 직전에 상경하여 왕의 측근에서 국정의 자문역을 맡게 되었고, 사림과의 의도대로 德興君의 第三子인 鈞이 세자로 책봉되어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림과 주도의정권이 성립되었던 것이다.¹¹⁾ 沈銓·鄭惕·金明胤·尹仁恕 등 권척계의 인물들을 중앙정계에서 축출하고 남곤의 관작을 삭탈함으로써 권척정권에 대한 사림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선조 즉위 후부터 己卯·乙巳被禍人에 대한 본격적인 석방과 복관이 이루어졌다. 조광조·권벌·이언적을 의정에 추증하고, 柳希春·盧守愼·金鸞祥·韓澍·李震·尹剛元·李元祿·白仁傑 등을 기용하였다. 나아가 조광조 뿐만 아니라, 己卯人 등 모두가 '愛君憂國'하면서 '至治'에 진력한 인물들이란 차원으로 이해 수준이 격상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추진한 개혁정치와 그 맥을 이은 乙巳人들의 행위가 역사적으로 정당화되는 반면, 乙巳土禍 起禍人 및 權威勢力의 존재와 그 행위가 부정되었던 것이다.

3. 士林政治의 成立과 展開

사림정권의 수립은 사림과 자체의 성장이 전제가 되었고, 또한 성리학적 질서가 총체적으로 확산되어, 그에 대한 적용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¹²⁾ 또한 사림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에는 公論을 중시하고 이를 堂下郎官을 통해 수렴, 실천함으로써 훈구대신들과 대응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변화시켜 간 데 있었다 즉, 훈구파의 비리와 부정을 논박하고, 사림파의 이상을 실천하는 三司의

8) 『明宗實錄』29, 18年 8月 乙丑條

9) 『同書』31, 20年 8月 辛卯條

10) 『同書』33, 21年 6月 庚辰條

11) 『同書』32, 21年 8月 丙戌條.

12) 李秉杰, 「朝鮮前期 支配勢力의 葛藤과 士林政治의 成立」, p 180

언론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三司의 인사를 吏曹銓郎이 장악하였고, 이조전랑은 사림파의 公論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主論者를 후임자로 스스로 천거하였다.¹³⁾ 훈구대신에게 대항할 수 있는 銓郎 言官權의 형성과 더불어 堂下 郎官權이 형성되면서 정치구조는 사림파 주도의 구도로 정착되어 갔다.¹⁴⁾ 이와 더불어 재야 유생들의 공론도 儒疏를 통해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였다.¹⁵⁾

선조의 즉위와 함께 성립된 사림정치는 사림 내부의 이념 상의 차이로 그들을 舊臣과 新進士類로 나누게 만들었다.¹⁶⁾ 舊臣은 윤원형의 패사 이전에 登科하여 權戚 아래서 관료 생활을 한 부류였다. 이들은 권척 주도의 체제를 인정 또는 묵인하면서 관료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부정하면서 대두한 신진관료들에게 '浮沈取容'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구신의 중심인물인 李浚慶은 명종조에 지조를 굽히지 않고 사류들을 옹호하여 명망을 얻었으나, 선조 즉위 후에는 급진적 개혁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신진사류를 견제하려 함으로써 그들과 점차 불화하게 되었다.

舊臣 가운데 朴淳·李鐸·李後白·金繼輝·尹斗壽·尹根壽 등은 권척체제를 부정함으로써 罷黜되거나 外職으로 밀려났다가 明宗 20년 이후 복직되거나 京職으로 복귀하여, 臺諫과 弘文館에 재직하면서 명종 말년 권척을 제거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고, 그로 인해 宣祖 초년 신진사류와 밀착하게 되었다. 이들은 신진사류와 함께 구신을 비판하면서 구체제의 혁신을 주장하였으나, 선조 8년경 後輩士類에 의하여 前輩로 불리며서 西人으로 지목되었다. 그리고 奇大升·吳健·許曄 등은 선조 즉위 후 혁신을 주장하다가 구신들에게 미움을 사서 退歸하였다. 대체로 구신들은 오랜 仕宦으로 말미암아 재야 사류에 비해 학구생활과 성리학적 소양이나 신념에는 투철하지 못한 약점을 지니고 있었다.

선조 초의 신진사류는 윤원형의 패사 이후에 관료로 진출한 인물들이었다. 이들의 관직은 宣祖 즉위 초의 時點에서는 正郎·佐郎·校理·修撰 등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그 핵심 인물은 李珥·鄭澈 등이었다. 李珥는 탁월한 학문과 명쾌한 논리로 동료와 후배 사류의 신망을 받은 것은 물론, 要職에 포진하고 있던 선배 관

-
- 13) 宋贊植, 「朝鮮朝 士林政治의 權力構造」, 『經濟史學』2, 1978
 金 燾, 「中宗代 言官의 性格變化와 士林」, 『韓國史論』10, 1984
 _____, 「16世紀 前半 政治權力의 變動과 儒生層의 公論形成」, 서울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3
 金宇基, 「銓郎과 三司의 關係에서 본 16世紀 權力構造」, 『歷史教育論集』13·14, 1990
- 14) 崔異敦, 「朝鮮中期士林政治構造研究」, 一潮閣, 1994
- 15) 薛錫圭, 「16~18世紀의 儒疏와 公論政治」,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4
- 16) 李泰鎮, 「中央五軍營制의 成立過程」, 『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1977
 金恒洙, 「宣祖初年の 新舊葛藤과 政局動向」, 『國史館論叢』34, 1992
 南達祐, 「宣祖初期(1567~1581)의 政局과 士林 李珥의 經筵日記를 중심으로」, 『인하사학』1, 1993
 金 燾, 「宣祖代 儒生層의 公論형성과 朋黨化」, 『震檀學報』78, 1994.

료와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외에 李滉 문인인 具鳳齡, 徐敬德 문인인 李之蘓, 曹植 문인인 崔永慶·鄭仁弘 그리고 許曄·李山海 등이 중앙정부 내에 자리잡고 있었다.

舊臣과 新進士類는 현실인식에 있어서 상당한 視角差를 보이고 있었다.¹⁷⁾ 신진 사류가 성리학적인 이상정치 구현과 권척체제의 과감한 청산을 주장한 데 비하여 대부분의 구신계 대신들은 급진적 개혁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다. 당시 신진사류는 당상관에 오른 '乙巳復官人'들이 일정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했으나, 그들은 사화를 몸소 겪었기 때문에 혁신에는 대체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반면, 신진사류의 과격함을 견제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점차 신진사류와 소원해지게 되었고, 구신계 대신들에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구신과 신진사류의 구체적인 갈등은 郎薦制를 두고 표출되었다.¹⁸⁾ 선조 초에 시행되는 이 제도는 16세기 銓郎의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이는 銓郎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함으로써 대신들의 청탁을 봉쇄하고 신진사류의 진출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 이 郎薦制의 실시는 구신과 신진사류의 대립을 야기하였으나, 사류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그것은 점차 정착되어 갔다. 이외에 구신과 신진사류는 선조 2년 1월 文昭殿에 관한 논의에서도 충돌하게 되었다. 이는 仁宗과 明宗을 문소전에 함께 모실 수 없는 현실에서 이를 변통하자는 신진사류와 舊規를 준행하자는 구신들과의 의견 충돌이었다.¹⁹⁾ 낭천제 시행에서의 의견 대립과 문소전 논의에서의 이념적인 차이로 구신계 대신과 신진사류의 불화가 깊어지는 가운데 金鑑·洪曇 등 구신들이 奇大升 등의 사류를 제거하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진사류와 구신의 경계가 확연히 나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그들은 각기 老黨·少黨으로 불리게 되었다.²⁰⁾

신진사류는 金鑑事件 이후 발언권이 증대됨에 따라 乙巳伸冤과 僞勳削除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 홍문관 교리 李珥는 선조 2년 피화인을 伸雪하고 을사공훈을 삭제하여 명분을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임을 천명하였다.²¹⁾ 그의 삭훈 주장은 권척 중심의 지배체제를 당초부터 부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서, 衛社功臣의 삭훈에 미온적이던 구신을 비판하는 뜻도 내포된 것이었다. 요컨대, 구신계 대신들은 핵심적인 인물들의 훈작만을 삭탈하는 선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신진사류는 위사공신 책록 자체를 무효화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17) 金恒洙, 「前揭論文」, pp.93~114.

18) 「宣祖修正實錄」9, 8年 8月條 및 李珥, 「經筵日記」1, 宣祖 卽位年 8月條.

19) 「高峯文集」2, 「論文昭殿筭」 및 「退溪文集」7, 啓議, 「擬上文昭殿議并圖」(『退溪全書』, 東國文化社, 1958 所收) 및 「經筵日記」1, 2年 2月條.

20) 「宣祖修正實錄」3, 2年 6月條

21) 「栗谷全書」15, 東湖問答, 「論正名爲治之本」

선조 4년 경에 이르러 구신들은 정국의 주도권을 상실하기 시작하였다. 李浚慶이 선조 4년 5월 영의정을 사직하였고,²²⁾ 구신들이 신진사류를 제거하려 한다는 流言이 유포되었다.²³⁾ 이 문제에 이준경이 직접 관련되었다는 인식에서 이준경을 비롯한 구신들에 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어 갔다. 게다가 선조 5년 7월 이준경이 올린 '破朋黨'의 遺劄가²⁴⁾ 사류를 견제하고 구신 세력을 부식시키려는 의도로 비취짐에 따라 신진사류는 이를 맹렬히 비난하게 되었다.²⁵⁾ 그러나 이준경의 죽음으로 대신들의 구심력은 사실상 와해되었고, 구신계 인물들은 잇달아 사직하였다.

선조 8년에 이르면, 老黨·少黨의 대립이 거의 소멸하면서 사림계가 명실상부하게 정국을 주도하였다. 李珥·金宇顛·金誠一·許曄·李潑·柳希春 등이 삼사에 포진하여 言權을 장악하였고, 朴淳·盧守愼 등이 大臣에 올랐다. 이에 사람 특유의 엄정한 기준에 따라 사류 내부의 부조리를 척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그 기준은 사화를 통해 얻은 정치적 경험과 성리학적 윤리에 두어졌다. 그리하여 士林 최초의 분당인 東·西人이 沈議謙·金孝元의 개인적인 대립·갈등에서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⁶⁾ 그러나 이 양자 충돌의 근저에는 재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선배 집단과 낭관권을 근저로 하는 후배집단 간의 구조적인 갈등의식이 깔려 있었다.²⁷⁾

李珥는 沈·金 양인의 분쟁을 조정하고자 심의겸을 개성유수로, 김효원을 경흥부사로 黜補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김효원을 추종하던 인사들이 이에 불복하였고, 게다가 김효원계인 許筠이 심의겸계인 金繼輝를 논박하여 평안도관찰사로 좌천시키면서 東人(후배)·西人(선배)의 양당 구도는 더욱 구체화되었고,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선조 11년 동인 金誠一·許曄 등은 서인의 중진 尹斗壽·尹根壽·尹睨 등이 貪汚하다고 탄핵하면서 東人을 '君子朋', 西人을 '小人黨'으로 규정지으려 하였다.(三尹事)

宣祖 16년 동인은 李珥가 兵曹判書로서 왕의 재가를 미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몇 가지 便宜策을 먼저 시행하였고, 또 왕의 부름을 받고도 즉시 入對하지 못한 일 등을 들어서 그를 '專擅慢君'의 '誤國小人'으로 몰아갔다.²⁸⁾ 왕은 朱子の '引君爲黨' 논리까지 인용하여 李珥·成渾黨에 들고자 한다며 그를 옹호하였고, 李珥의 탄핵을 주도한 宋應漑·許筠·朴謹元 3人을 원찬하였다.²⁹⁾(癸未三竄) 그 결과 이

22) 「宣祖實錄」5, 4年 5月 己丑條.

23) 「宣祖修正實錄」5, 4年 7月條

24) 「宣祖實錄」5, 5年 7月 庚寅條 및 李浚慶, 『東臯遺稿』4, 「遺劄」.

25) 「宣祖修正實錄」6, 5年 5月條 및 「栗谷全書」4, 「論朋黨疏」.

26) 鄭萬祚, 「16世紀 士林系 官僚의 朋黨論」, 『韓國學論叢』12, 1989.

27) 崔異敦, 「前揭書」, pp 196~213.

28) 「宣祖實錄」17, 16年 7月 乙未條

이는 중립적 지위를 상실하고 자연히 서인의 명색을 갖게 됨으로써 서인은 학연에 기초한 정파로서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곧 상호 비판과 견제를 그 운영 원리로 하는 朋黨政治의 본격적인 전개를 가져 왔다.³⁰⁾ 선조 17년 李珥의 죽음을 계기로 東人이 정국을 장악하였으나, 선조 22년 鄭汝立 사건³¹⁾에서의 연루자 구출문제와 선조 24년 建儲事時 鄭澈에 대한 응징문제로 李滉 계열의 南人과 徐敬德·曹植 계열의 北人으로 나뉘어졌다. 이후 북인은 다시 小北·大北으로 분열을 거듭하였고, 남인 서인과 함께 선조 말까지 정국에 계속 참여하였다.³²⁾ 光海君代에는 大北이 專權을 장악하였으나, 仁祖反正으로 北人은 潰滅되었고, 西人과 南人이 주축이 되어 朋黨政治를 운영해 갔다.³³⁾

이와 같이 士林政治는 사람의 분열로 인한 붕당의 출현이라는 변수와 두 차례의 전란 및 반정에 따른 공신세력의 정권장악 등으로 원만한 적용을 보지 못하다가 사람의 대표라 할 수 있는 '山林'의 정국 주도가 가능해 진 孝宗·顯宗代에 이르러 그 절정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왕권과의 마찰을 가져온 결과, 숙종대에 이르러 왕권에 의한 산림 제거와 별열세력의 현저한 대두 속에서 점차 쇠퇴해 갔다.

사람세력은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신봉하고 그 실천에 힘쓰는 존재였던만큼, 그들이 추구한 궁극적인 목표는 성리학적 통치이념의 구현에 의해 三代의 '至治'를 재현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사람정치는 당연히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 지난 날 선배들이 勳戚과의 투쟁과정에서 얻었던 정치적 경험과 유산 등이 그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시대와 여건이 달라지고 특히 붕당의 출현으로 사람의 정치적 입지가 변하였기 때문에 前代의 방안을 그대로 답습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그에 따라 변용된 17세기 사람정치의 운영논리는 激濁揚清과 調用論, 君主聖學論, 公論 중심의 정국운영, 견제와 비판의 권력구조, 山林世道論, 養民 우선의 民生對策과 財政裁減論 등을 근간으로 삼고 있었다.³⁴⁾

이러한 사람정치의 성립과 붕당 중심의 정치 전개는 嶺南學派에도 상당한 영향

29) 「同書」17, 16年 8月 丁丑條 및 9月 丙戌條

30) 李泰鎮, 「前揭論文」, p.58

31) 金龍德, 「鄭汝立研究」, 「韓國學報」4, 1996
禹仁秀, 「鄭汝立 謀逆事件의 真相과 己丑獄의 性格」, 「歷史教育論集」12, 1988.

32) 具德會, 「宣祖代後半(1594~1608) 政治體制의 再編과 政局의 動向」, 「韓國史論」20, 1988
申明鎬, 「宣祖末·光海君初의 政局과 外戚」, 「清溪史學」10, 1993.

33) 吳洙彰, 「仁祖代 政治勢力의 動向」, 「韓國史論」13, 1985
韓明基, 「光海君代 大北勢力과 政局의 動向」, 「韓國史論」20, 1988

34) 鄭萬祚, 「朝鮮時代의 士林政治」, 「韓國史上的 政治形態」, 一潮閣, 1993.
——, 「17世紀 政治史의 理解方向」, 「韓國의 哲學」22, 1994.

을 미쳤다. 15세기 후반 金宗直을 영수로 한 경상도의 신진사류를 '嶺南士林派'라 한다면, 16세기 중반 李彦迪·李滉·曹植의 학통을 포괄해서 이를 '嶺南學派'라 할 수 있다.³⁵⁾ 前者에서는 성리학의 수용과정에서 朱子の 『經典集註』와 『家禮』 및 『小學』을 성리학의 실천윤리와 教育 및 行身の 기본으로 삼았다. 이에 비해, 後者는 理氣心性論과 禮學을 주축으로 한 道學을 주로 窮究하면서 李珥·成渾을 영수로 한 畿湖學派에 대칭되는 학파로 존립하였으며, 學緣上으로는 李滉과 曹植의 학통을, 政派上으로는 東人 내지 南人 또는 北人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대체로 左道의 李滉學派는 16세기 후반 사림이 중앙정계를 장악할 때,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이 되었고,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는 그 문하를 출입한 인사들이 정계·학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다시피 하였다. 선조 8년 士林派의 東·西 分黨이 결과적으로 嶺南·畿湖란 양 학파의 반목과 대립을 가져왔지만, 李滉만은 양 학파나 영남·기호 출신에 관계 없이 숭앙되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었다. 영남학파의 二大 山脈이었던 이황과 조식은 同時·同道人으로 서로 畏敬하는 사이였지만, 양 師門에 출입한 문인 간의 경쟁과 대립으로 다소 불편한 관계가 되었고, 己丑獄事를 거치면서 양 사문의 高弟 柳成龍과 鄭仁弘을 중심한 남인·북인의 분당을 가져오게 되었다. 남·북 분당은 결국 경상좌·우도를 이황과 조식학파의 세력권으로 나누어 가지게 하였다. 이에 양현의 문인과 문인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양 사문의 출처와 학문적 우열론이 제기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그 논쟁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그리하여 선조 말년에 이르러 柳成龍 일파는 물러나고 鄭仁弘세력이 득세하게 되었으며, 광해군의 즉위와 함께 정인홍은 대북정권의 영수로서 사림의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선조 말부터 북인이 남인을 대신하여 집권하게 되자, 정인홍세력이 좌도를 압도하게 되었고, 유성룡과 사이가 좋지 않던 趙穆이 陶山書院에 배향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趙穆은 柳成龍·金誠一과 함께 李滉의 三大 門人임에 틀림 없지만, 오직 그만이 도산서원에 배향된 배경은 그가 정인홍의 政敵인 유성룡과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았고, 북인의 거두 李山海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광해군의 즉위로 대북정권이 확립되자, 정인홍은 유성룡세력을 압도하고 대북세력을 이황학파의 근거지인 도산서원에 부식하기 위해 조목 문인들을 대거 등용하였다. 그 결과, 趙穆·琴蘭秀·李德弘의 제자들과 金中淸·金澤龍·朴守誼·孫祐·徐兢 등 禮安士林이 과거에 급제하거나 관직에 진출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⁶⁾

仁祖反正時 鄭仁弘이 처형된 뒤에는 그의 행위의 연원을 스승 조식에까지 소급하여 연루시킴에 따라 조식학파는 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에 따라 영남학파는 이황 학통을 중심으로 통일되어 갔으며, 서인정권이 설정해 놓은 일정한 범위

35) 李樹健, 「嶺南學派의 形成과 展開」, pp.327~399

36) 李樹健, 「前揭書」, p.390.

내에서나마 중앙관계에 어느 정도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李德弘의 家系와 師友

李德弘은 中宗 36년(1541) 10월 14일에 태어나 宣祖 29년(1596) 2월 19일 56세로 일생을 마쳤다. 위에서 살폈듯이, 그는 士林政治가 軌道에 올라 士林派의 理念과 理想이 國家 次元의 그것으로 자리잡아 가던 時期에 그의 壯年期를 보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난 시기는 己卯士禍로 士林派가 정치적 수난을 겪고 난 후, 다소의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었으나, 아직 '己卯人'의 伸冤과 復權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때이다.

그의 이름은 德弘, 字는 宏仲이고, 號를 良齋라 하였는데, 이름과 자는 모두 그의 스승인 李滉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³⁷⁾ 그의 本貫은 永川으로, 6대조 軒 때에 安의 汾川으로 移居하였고, 그의 조부인 賢佑 代에 와서 汾川의 상류인 川沙村에 卜居하였다.³⁸⁾

永川李氏의 始祖는 文漢이나, 그 이후의 世系가 분명하지 않아 大槩으로 始祖를 삼게 되었다 한다.³⁹⁾ 그러나 그 이후의 계보도 그다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家系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여러 자료들을 종합하면, 대체로 다음 쪽에 제시된 모습과 같은 系譜로 파악된다.⁴⁰⁾

朝鮮王朝에 들어와서 永川李氏로서 文科에 及第한 인물은 李德弘이 生存했던 宣祖朝까지 한정해 보면 14人으로 파악되고 있다.⁴¹⁾ 그러나, 그들 모두가 아래의 系譜에 속한 인물은 아니다. 아래에 파악되어 있는 인물 중에서 文科에 급제한 이는 그의 從祖父인 賢輔와 5寸叔父인 仲樑 두 사람 뿐이다. 전체 문과 급제자의 수로 볼 때에는 嶺南士林派 家門으로서는 그다지 寒微한 편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直系 중에는 顯達한 이가 그다지 많지 않고, 知中樞府事에 오른 從祖父 賢輔

37) 『良齋集』8, 「年譜」에는 “…因命名德弘 字曰 宏仲 呼而至前曰 子知子名之義乎 曰未也曰 德字 從行從直從心 卽行直心也 古人命名 必因其人 子其體之”라 기록되어 있다.

38) 宋時烈, 『宋子大全』210, 「永春縣監贈參判李公德弘行狀」 및 李玄逸, 『葛庵集』, 別集 5, 「良齋李公行狀」 참조.

民族文化推進會 刊行的 韓國文集叢刊 第51冊에 收錄되어 있는 『良齋集』에는 「行狀」과 「墓碣銘」이 收錄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1995年 良齋先生文集 刊行委員會가 펴낸 책에는 이 모두가 수록되어 있다. 이후에는 1995年 刊 『良齋集』에 수록되어 있는 「行狀」을 이용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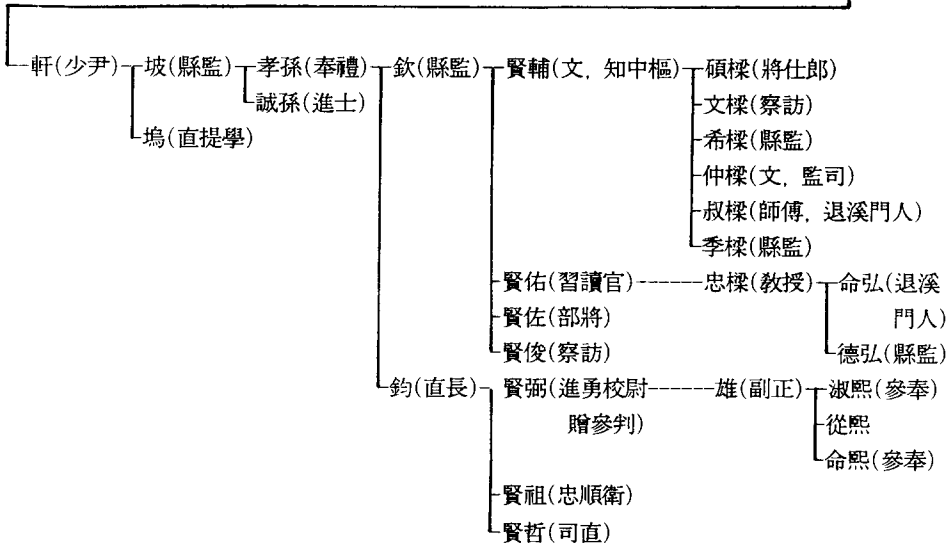
39) 『龔巖集』, 續集 1, 世系 참조.

40) 이 系譜는 「萬姓大同譜」(上)·(補)와 『龔巖集』의 「世系」·「年譜」·「行狀」과 「良齋集」 등을 對比; 하여 작성한 것이다.

41) 「國朝榜目」 참조.

와 江原道 觀察使를 지낸 5寸叔父 仲樑이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 이외에 禮安에 최초로 移居한 6代祖 軒은 軍器寺 少尹을 지냈고, 5代祖 坡는 朝鮮朝에 들어와 義興縣監을 지냈으며, 高祖父 孝孫은 通禮門 奉禮를, 曾祖父 欽은

大榮(大將軍·永陽君)---得芬(典工判書)---文卿(護軍)---松侶(吏部侍郎)---忠(主簿)



麟蹄縣監을, 祖父 賢佑는 訓練院 習讀官을, 父 忠樑은 教授를 지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⁴²⁾

조선왕조는 그 건국 초기에는 '近民之職'이라 하여 守令을 매우 소중히 여겼다. 그리하여 그 선발에 있어서도 侍從·郎官과 같은 유능한 인재를 대상으로 구상한 바 있었고,⁴³⁾ 그 원활한 공급을 위해 京官職과의 循環勤務를 시도한 바도 있었다.⁴⁴⁾ 그러나 중앙집권국가에 있어서 外官職을 權力의 中心에서 疎外되는 것으로 여기는 通念 때문에 守令은 기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중앙정부는 이를 통

42) 「龔巖集」, 「世系」 및 「良齋集」, 「行狀」·「墓碣銘」 참조

43) 「朝鮮經國典」上, 官制 참조

44) 「世宗實錄」54, 13年 10月 戊申條에 따르면,

傳旨吏曹 守令近民之職 古今重選 凡爲朝士 必經是任 諳練庶務 將爲他日之用 有益治體 今之朝士 不體此義 多慕京官 不樂外任 一補外宰 憚於六期 托故窺免 甚爲不當 自今大小朝士及功臣與二品以上子壻 例授外任 以杜輕外之弊 如有窺避者 限六年不叙 以爲恒式

이라 申飭하였다. 이같은 措置가 비록 「經國大典」의 규정으로 법제화되지는 못했으나, 「成宗實錄」에서 「祖宗朝 自五品陞四品 自四品陞三品 俱有限制 今則東班朝士 必經守令 然後授四品」(82, 8年 7月 乙酉條)이라 함을 보면, 世宗朝의 조치가 행정상의 한 관행으로 지켜지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하기 위해 벌칙 조항을 『經國大典』에 규정해 두기도 하였으나,⁴⁵⁾ 그같은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에 따라 後代로 갈수록 守令 補任者의 자질은 저하하여, 일부의 大邑 守令을 제외하고는 武·蔭 守令이 파견되는 곳이 늘어나게 되었다.⁴⁶⁾ 李德弘의 가까운 先祖 중에 守令職을 역임한 이가 많았던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점에서 보면, 그의 家系가 지니는 특성도 嶺南士林派 家門에서 쉽사리 발견되는 성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의 사림파는 '爲學' 쪽에 기울어 있으면서도 出仕를 완전히 배격하지는 않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사대부들이 지니고 있던 양면성인 동시에 사림파가 지니고 있던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곧 사림파의 계보에 드는 인물들은 대체로 향촌에 은거하여 性理學의 탐구에 沈潛하였으므로 科業에 그다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文科에 급제한 이가 대칭세력인 勳舊派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도 성리학적 이상이나 이념을 현실에 구현하려면 그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위치, 곧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관직에 진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그들도 적극적으로 科業에 매달리지는 않았지만, 出仕의 기회를 철저히 기피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조선전기의 경우, 후대로 갈수록 사림파 내에서 문과 급제자가 증가하는 것은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다.⁴⁷⁾ 더욱이 조선후기에 이르러 學行이 두드러진 鄉村의 '遺逸之士'가 山林⁴⁸⁾으로 徵召되어 대거 중앙정부에 진출하게 되는 시대적 추세는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가장 유력한 증거라 할 것이다. 이러한 지향성은 李德弘의 현실대응 의식이나 자세에서도 그대로 投影되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된다.

李德弘은 그의 나이 18세 되던 明宗 13년(1558) 가을에 琴蘭秀에게서 古文을 수업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學究生活을 시작하였다. 그의 李滉과의 만남은 그 이듬해인 明宗 14년(1559)으로, 이때 그는 琴蘭秀의 안내로 李滉에게 受業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후 이황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여 년동안 줄곧 그의 문하를 떠나지 않고 측근에서 늘 그와 함께 생활하였다. 이 시기 李滉은 그의 仕宦生活의 마

45) 「經國大典」, 吏典, 京官職條에는 守令의 任期와 함께 '托故窺避'의 罰則條項도 명문화해 두고 있다

46) 守令職의 文·蔭化, 武·蔭化 추세에 관해서는 具玩會, 「朝鮮後期の 守令制 運營과 郡縣支配의 性格」,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2 참조.

47) 李秉然, 「前揭書」, pp 34~46.

48) 朝鮮後期 山林에 관해서는 李佑成, 「韓國 儒教의 名分主義 및 그 政治的 機能에 관한 一考察 李朝後期の 山林에 대하여」, 「成均館大學校 東洋學學術會議論文集」, 1975 禹仁秀, 「17世紀 山林의 勢力基盤과 政治的 機能」,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2 등 참조

지막 단계를 맞이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出仕보다 사직하여 鄉里에 머무르는 경우가 훨씬 잦았으므로⁴⁹⁾ 李德弘이 그 가까이서 생활하는 기회는 상대적으로 많았을 것이다. 그리하여 李滉은 죽음에 임하여 그에게 자신의 書冊을 맡아서 정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⁵⁰⁾

李滉의 門人 중에는 出仕前에 단기간 그를 師事한 이도 있었고, 더러는 출사 중에 틈틈이 그와 학문을 논의한 이들도 있었다. 그들에 비하면, 李德弘은 청년기를 거의 이항의 문하에서 학문을 연찬하는 데에만 힘쓴 드문 경우에 속한다. 그의 일생에서 그다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仕宦期間도 李滉이 세상을 떠난 이후의 시기였다. 조선왕조의 사대부는 그 능력이나 出處 및 현실대응의식 등에 따라 대개 다음의 몇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詩賦 등 詞章에 능한 자, 戰術과 戰略에 일가견을 가진 자, 性理學과 禮學에 일가견을 가진 자, 經世術과 行政實務에 능한 자, 즉 文·武·學(哲)·吏(吏才) 등 네 부류가 그것이다.⁵¹⁾ 이에 근거하여 보면, 李滉의 門人들도 그 학문적 수준 및 성향, 출처관, 학문과 관직의 연계성, 현실대응 의식 및 자세 등 여러 측면에서 몇 부류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李德弘은 그의 壯年期에 出仕하여 일정 기간 관리생활을 하였으나, 그것이 그의 생애에서 지나는 무게가 그다지 크지 않음은 위에서 이미 논급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는 위 네 부류 중 學(哲)에 속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李德弘은 때 늦은 나이인 19세에 李滉을 좇아 학문의 길에 들어섰으나, 그 이전에는 '爲學之方'을 알지 못하여 자못 방황하는 세월을 보낸 것 같다. 그가 李滉의 門徒가 된 2년 후 스승에게 올린 글 가운데

德弘은 어려서 不幸한 일이 셋 있었습니다. 榮川 南村에서 태어나 縣(禮安)의 迂川에서 자랐습니다. 남촌은 어웃에 남들을 이끌 善俗이 없었고, 우친은 弊廬만 있는 데다 學者가 없어 비록 배우고자 하나 누구를 좇아 배울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몸은 들짐승과 같아서, 집을 나서면 나뭇꾼과 놀면서 鷹犬을 따라 뛰어다녔고, 집에 들어 오면 父母 말씀을 듣지 않고 兄과 傭 사람에게 대들었습니다. '灑掃應對進退之禮'를 알지 못했고, 오만하고 게으른 일을 익혔으며 '利欲之心'을 키웠습니다. ... 그러니 비록 책을 읽는다 한들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것이 弘의 不幸 중 하나입니다. (52)

49) 李秉休, 「退溪 李滉의 家系와 生涯」, 『韓國의 哲學』1, 1973 참조.

50) 「良齋集」, 「行狀」(宋時烈 撰 및 李玄逸 撰) 참조.

위의 책, 「行狀」(李玄逸 撰)에 따르면, 그는 李滉이 죽자, “不勝山頽棟壞之痛 爲之心喪三年”하였다 하였고, 그의 「年譜」에는 “先生不勝山頽之痛 心喪三年 朔望之奠 未嘗不進參 所過野老 以先生往來 知朔望云”이라 기록되어 있다.

51) 李樹健, 「西厓 柳成龍의 學問과 學脈」, 『韓國의 哲學』23, 1995, p.7.

52) 「良齋集」3, 問目, 「上退溪先生 辛酉」

德弘自幼不幸有三焉 生於榮川南村 而長於縣迂川 南村則鄰無善俗 以富導人 迂川則弊廬獨在 又無學者 雖欲學焉 其孰從而學也 是故身猶禽獸 而出則從樵牧遊嬉 隨鷹犬奔走入則背父母傲

라고 한 사실에서 확인된다. 그의 이같은 생활은 그 뒤에도 계속되어, 17세에 興海 鄕校의 教授로 부임하는 부친을 따라 그곳에 갔으나, 그 지방의 學風도 東詩를 主學으로 하는 詞章에 흐르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벗들과 酒色을 일삼게 되었다. 그런 까닭에 妄言과 妄行을 익혔을 뿐 전혀 책을 읽지 않았다. 다행히 형의 도움으로 琴蘭秀를 만나 古文을 배웠고, 小學을 읽도록 권유 받았으나 그 義理를 깨우치지 못했으며, 그 뒤 李滉의 門下에 들어와서도 詞章의 末節을 일삼아 위로는 선생을 속이고 아래로는 금난수를 속인 것으로 누우치고 있다.⁵³⁾ 이런 그의 述懷에는 다소의 謙讓도 내포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스스로의 과거 생활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다. 이같은 그의 초년의 무절제하고 분방한 생활태도와 함께 그의 學究에 걸림돌이 된다고 스스로 판단했던 것은 자신의 학문적 자질에 대한 懷疑였다.⁵⁴⁾ 그러던 그가 李滉의 門下에 들어 온 지 얼마 후부터 분발하기 시작하여 10년 남짓 늘 스승의 신변에 머물면서 학문에 정진하게 되었다.⁵⁵⁾ 그는 독서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은밀하고 미세한 것을 찾았고, 비록 小註나 자잘구레한 것이라도 세밀히 분석하였으며, 조금이라도 疑晦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스승에게 물어서 속 시원히 깨친 뒤에야 만족하였다고 한다.⁵⁶⁾ 이같은 그의 학구적 자세는 그의 스승인 李滉의 학문적 완성에 상당한 자극제가 되었으리라는 추측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가 스승의 死後 書冊의 정리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게 되었던 것도 이처럼 학문에 정진하여 성취한 점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기록은 『溪山記善錄』 등 그의 文集 중의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그는 四書·心經·古文·家禮 등 여러 방면에 두루 통달하였으나, 특히 周易에 조예가 깊었다.⁵⁷⁾ 그다지 많지 않은 분량의 그의 文集에서 論語質疑

兄長 不知灑掃應對進退之禮 習其傲惰之事 養其利欲之心…雖或讀書 何處用之 此弘之不幸一也

53) 同上.

54) 『良齋集』5, 『溪山記善錄』(上)에는 “德弘嘗患才質之魯下 先生曰 孔門傳道之人 乃是質魯之曾氏 則魯何必患 但魯而不篤實 則是爲患耳 仍述晦菴意作詩一節 手書以與弘 詩曰四兵芸草一兵遲 捷手三兵共咤咻 捷者留根煩再拔 不如遲者盡初時”라 하여, 才質의 高下가 學問에 그다지 큰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독실한 노력의 부족이 학문의 장애임을 曾子의 예를 들어 教誨하였다. 이 『溪山記善錄』은 上·下 두 권이다. 이는 李德弘이 李滉을 측근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보고 들은 스승의 言行 등 모든 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서, 스승이 죽은 이듬해에 완성한 것이다. 이때 그의 나이는 31세였다.

55) 그는 ‘敬’으로 主宰를 세우고, “心勿忘 勿助長”의 姿勢를 堅持하며 학문에 정진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良齋集』6, 『溪山記善錄』(下)에 “德弘從容問曰 前日先生教德弘曰 立主宰不過一敬字 而敬之爲說多端 不如姑就整齊嚴肅 上做工夫 則無少忘助之病云”이라 한 기록이 있음에서 알 수 있다.

56) 『良齋集』, 『行狀』(宋時烈 撰)에 따르면, “公讀書 必尋求密微 雖小註紛拏 亦必細繹分釋 小有疑晦 必就正於先生 要以心會自得而後已”라 하였다.

57) 同上條에 따르면, “有四書·心經·古文·家禮釋疑 又有自疑錄等書 尤致精於周易 別有所錄 先生沒後 一時諸賢 無不樂與講討焉 其心經釋疑 則公受讀時 詳錄其訓語 質於先生 而證正稱亭不失本旨者也”라 하였다.

· 孟子質疑 · 中庸質疑 · 大學質疑 · 周易質疑 · 心經質疑 · 古文前集質疑 · 古文後集質疑 · 家禮註解 등 그의 학문체계를 보여주는 저작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인물의 交友關係나 接觸人物을 파악하려면 文集에서 찾아지는 書(簡札)와 詩를 우선 살피는 것이 손쉬운 방법이다. 書에는 그가 주고 받은 書信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친분관계를 쉽사리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詩는 자연이나 인간사 또는 세태에 관한 스스로의 감회나 소신을 詩語를 통해 나타낸 것이어서, 그의 자연관과 인간관 및 현실을 바라보는 의식이나 자세를 살피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만, 그 가운데 상당수는 타인과 唱酬한 것이어서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데 示唆하는 바가 많은 자료이다. 그리고 師友錄이나 及門錄은 師弟關係나 同門受學 與否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李德弘의 경우 학문적 체계를 보여주는 부분에 비하여 詩 · 書의 量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書가 더욱 적은 量이며, 師友錄이나 門人錄은 아예 없다. 이는 그의 交友範圍가 그리 넓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우선 詩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정리해 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李滉 · 金富弼 · 金富儀 · 金誠一 · 白見龍 · 朴允誠 · 李安道 · 金士元 · 具贊祿 · 金富倫 · 朴攄 · 南致利 · 金隆 · 權好文 · 權宇 · 李교 · 金希仲 · 尹採蓮 · 權伊溪 · 柳淇 · 柳成龍 · 李國弼 · 金道盛 · 姜浩源 · 姜松巖 · 任屹 · 李希清 · 金圻 · 許筠 · 趙穆 · 裴三益 · 盧守愼 · 孫君立

그리고 書에 등장하는 인물은 몇 사람에게 지나지 않는다. 琴蘭秀 · 南致利 · 權宇 · 鄭士誠 · 柳雲龍 · 柳成龍 등 여섯 사람이 전부이며, 그 중에서 權宇에게 보낸 答信이 여섯 차례로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대개는 權宇의 학문적 질의에 대한 그의 所見의 開陳이 主內容을 이루고 있다. 詩를 唱酬한 위의 인물과 종합해 보면, 그가 접촉한 인물은 기록 상으로 37인에 불과하다.

그는 청년기를 李滉의 측근에서 보냈다. 당시 그의 師友 중에는 出仕中이었던 인물이 많았던 데다가 그가 출사한 것은 李滉이 죽은 8년 후인 宣祖 11년(1578)으로 이때 그의 나이 38세였다. 이러한 조건들이 그의 交遊範圍를 좁히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게다가 그가 재직했던 관직은 거의 京官職의 閑職이나 外職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가 중앙의 청요직에 종사한 名望家의 자손이나 士林의 저명한 인물들과 접촉할 기회는 거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접촉범위는 자연스럽게 李滉 문하의 師友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위에 摘示된 소수의 인물 대부분이 『陶山及門諸賢錄』에서 찾아지는 사실⁵⁸⁾이 이를 반증한다.

5. 李德弘의 出處와 現實對應

初期의 士林은 대체로 '沈潛性理'하는 志向性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미 士林派는 하나의 세력집단, 곧 조직성을 지니면서부터 관직에 전혀 무관할 수는 없었다. 成宗 中葉부터 金宗直 門下의 인물들 중에서 文科에 급제하는 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出仕하는 수가 늘어나게 되었던 것은 곧 이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한 證佐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士林政治가 실현되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李德弘이 生長하고 있던 16世紀 後半은 바로 그런 시기에 해당한다.

그는 李滉의 門下에서 수업한 지 3년 후인 明宗 16년(1561) 스승에게 올린 글 가운데에서

小子의 나이 이제 스물이 넘었습니다. 애당초 요행히 科擧에 급제하는 데 뜻을 두었더니, 지금 門下에 從事하고서야 비로소 小學總論을 보게 되었습니다.⁵⁹⁾

라 함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학문만에 뜻을 둔 것은 아니었고, 科擧에도 유념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것은 그가 李滉의 문하에 들어오기 이전 詞章에 깊이 빠져 있었다고 뒷날 뉘우치고 있는 점이나 그의 門中에 仕宦이 끊어지지 않은 사실에 의해 傍證된다. 이러한 그의 出處觀은 스승의 그것에서 영향 받은 바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다. 언젠가 이황은

(官職에) 나아갈 수 있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나아가는 것이 恭順한 것이 될 것이고, 나아갈 수 없어서 나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아가지 않는 것이 恭順한 것이 된다.⁶⁰⁾

라 하였는데, 이에서 엿보이는 그의 出處觀은 '出'과 '處'의 양면을 모두 인정하는 一面이 있는가 하면, 양면에 모두 철저히 못한 일면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그의 현실대응자세는 그가 지닌 양면성 중 學問에의 傾斜를 보여주는 意志의

58) 「陶山及門諸賢錄」(前掲『退溪全書』下 所收)에 收錄되어 있는 인물은 本錄 258인과 續錄 44인을 합하여 대략 300餘人인데, 그 중에서 李德弘이 가까이 交遊했던 인물은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그 마저도 일정한 범위에 치우쳐 있음을 볼 수 있다

59) 「良齋集」3. 問目, 「上退溪先生 辛酉」.

小子之年 今過二十 初以僥倖科第爲意 今從事於門下 始看小學總論

60) 「顯宗改修實錄」21, 10年 8月 丁丑條에 따르면, 宋浚吉은 上疏하기를, 善乎 先正臣李滉之言曰 可進而進者 進爲恭 不可進而不進者 不進爲恭 今臣亦曰 可承命 而承命 則承命爲誠信 難承命而不承命 則不承命爲誠信

이라 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李秉然, 「退溪 李滉의 家系와 生涯」 참조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權威 지배 하의 경색된 정국에서 出仕에 결코 적극적일 수 없었던 그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시기에 그는 낙향과 출사를 반복하는 생활을 하였다. 그리하여 명종 말에 이르러 少壯 士林派 상당수가 국왕의 측근에 侍從하게 되면서 그를 정성을 다해 붙잡아 둘 것을 바라는 분위기의 변화⁶¹⁾가 있어서, 일시 上京하기도 하였으나, 끝내 낙향하였다. 그 뒤 宣祖 즉위 초 士林政治의 정착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 이르러서도 그의 恬退 성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許曄이

예로부터 帝王은 어진 선비를 얻어 배운 뒤에야 王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李滉이 늘 병으로 사직하니 상감께서 공경과 예의를 다하시어 師傅로 삼고자 하신다면 올 수 있을 것입니다.⁶²⁾

라고 上啓한 내용에서 확인된다. 이같은 그의 現實認識은 李德弘에게 거의 그대로 傳授되었음을 본다. 가령 그가

君子의 學問은 '爲己'일 따름이다. 이른 바 '爲己'란 곧 '敬'을 베푸는 것으로서, 대저 이른 바 일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 데도 저절로 그리 된다는 것이다. 가령 깊은 산 무성한 숲 속의 한 그루 蘭草는 종일 香氣를 풍기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는) 君子 '爲己'의 뜻에 정확히 合致하는 것이니, 宜當 깊이 본받으라.⁶³⁾

라고 깨우치고 있는 一面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德弘이 묻기를 “柔弱한 資質로는 學業을 함께 다듬을 수가 없겠는데,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先生이 말씀하시기를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용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古人들도 學業을 함께 다듬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다.”⁶⁴⁾

라 일깨우고 있음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또한 李滉의 出處觀과 현실대응의식 및 자세를 보여주는 한 片鱗인 동시에, 대개의 士林派 인물들이 지니고 있던 志向性

61) 당시의 大臣들은 李滉의 恬退를 國王의 誠意 부족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이는 다음과 같은 史臣의 論評에서 感知된다.

人君有尊賢樂道之誠 則巖穴之士 亦將願立於朝 豈有求退不暇如滉者哉 然則非滉之退也 上之誠不足也(「明宗實錄」25, 14年 4月 己酉條)

62) 「宣祖修正實錄」1, 卽位年 10月條.

自古帝王 得賢師爲學 然後王業可興 李滉累辭病 上若致敬盡禮 欲以爲師 則可至矣

63) 「良齋集」卷5, 「溪山記善錄」上

君子之學 爲己而已 所謂爲己者 卽張敬 夫所謂無所爲而然也 如深山茂林之中 有一蘭草終日薰香 而不自知其爲香 正合於君子爲己之義 宜深體之

64) 同上

德弘問 柔弱之質 不能兼治學業 如何 先生曰 知而不爲 是無勇也 古人亦不禁兼治學業

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것은 자칫 양면 모두를 불철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 점도 없지 않았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선의 선비가 지향했던 네 갈래의 재능이나 特長 중 어느 하나에도 강하지 못한 인물들이 많이 존재했던 것은 그에 기인하는 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李德弘이 薦舉⁶⁵⁾에 의해 출사하게 된 것은 宣祖 11년(1578) 7월이었다. 이때 그는 鄭述·南致利·成浩·金長生·具思閔·權應時·金潤身·文夢轅 등 8인과 함께 經筵官에 의해 천거되고 吏曹가 이를 入啓하였는데, 왕이 薦目を 明示하여 上啓하도록 하였다.⁶⁶⁾ 그 천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良齋集』에 따르면, 곧바로 6품직에 敍用할 鄭述는 “天資超邁 學行著聞”으로 천거되었고, 取才 없이 敍用될 8명에 속한 李德弘의 薦目は “見善興起 勵志讀書”였다.⁶⁷⁾ 이 시기에는 이미 사림정치가 그 軌를 찾기 시작한 때였고, 그에 따라 중앙정부의 중요 부서에 사람파가 대거 진출해 있었으므로 당시의 경연관도 대개 士林派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와 함께 천거된 인물들이 모두 嶺南과 畿湖 地方 士林系 인물들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의 宦路 經歷은 出仕 이후 宣祖 27년(1594)까지 17년 간에 걸치고 있으나, 파직, 낙향해 있던 2년을 빼면 15년 간이 된다. 그다지 짧지 않는 이 기간동안 그는 다음과 같은 몇 관직을 거쳤다.

集慶殿 參奉(宣祖 11年 : 38歲)→昌陵 參奉(同 14年 : 41歲)→豐儲倉 奉事(同 15年 : 42歲)→顯陵 參奉(同 16年 : 43歲)→宗廟 直長(同 22年 : 49歲)→(以事罷還家 : 同 23年, 50歲)→司饗院 直長(同 25年 2月 : 52歲)→翊衛司 右副率(同 25年 4月 : 52歲)→永春縣監⁶⁸⁾(同 26年 : 53歲)→朝散大夫·朝奉大夫(同 27年 : 54歲)

이에서 드러나 있는 바와 같이, 그가 거친 관직은 參奉·奉事·直長·副率 등 閑職과 外職의 縣監이 전부였다. 청요직인 郎官이나 三司職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65) 士林派는 勳舊派가 科擧와 門陰 두 通路로 人材를 登用한 것을 완전히 배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훌륭한 인재는 鄉村에 隱居하는 遺逸之士 중에서 발굴해야 한다는 見地에서 薦舉에 의한 官立 登用을 강화하였다. 中宗朝의 趙光祖 등 ‘己卯人’에 의해 실시된 賢良科는 그 典範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薦舉制는 士林政治期에 이르러서 더욱 活性化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李秉然, 『前掲書』, pp.214~262.

崔異敦, 『朝鮮中期士林政治構造研究』, 一潮閣, 1994

鄭求先, 『朝鮮時代 薦舉制度 研究』, 초록배, 1995 등 참조.

66) 『宣祖實錄』12, 11年 3月 甲子條. 이 記錄에서 李德弘의 ‘弘’은 ‘洪’으로 되어 있다.

67) 『良齋集』8, 「年譜」附 「萬曆戊寅宣廟朝九賢薦目」.

68) 『宣祖實錄』卷36, 26年 3月 乙亥條에 따르면, 그가 永川縣監에 除授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永春邑誌』(邑誌 七, 忠淸道 ①, 亞細亞文化社, 1984 所收)의 先生案에는 그가 그곳의 縣監을 지낸 것으로 파악되어 있다.

대개 學行으로 천거된 자가 入仕하게 되는 成均館職에도 진출하지 못했다. 후일 山林이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그들은 일단 신설의 山林職을 거친 다음, 삼사나 낭관 등 청요직에 진출하게 되는 추세⁶⁹⁾에 비겨 보면, 초기의 산림적 성향을 띤 그의 진출은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이는 그의 교류범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동시에 스스로의 경륜을 펼 기회마저 허용하지 아니한 요인으로도 작용했으리라 본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李德弘은 처음부터 학문에만 沈潛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出仕에도 유념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거를 통해 徵召되자, 곧바로 출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출사만을 지향했던 勳戚系 인물들이나 학문보다 출사에 더 적극적이었던 士林系 인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수준이었다. 이는 그의 스승 李滉의 그것에 심히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柳雲龍이 宣祖 1年 봄 스승 李滉이 新王의 初政에 당하여 時事에 너무 무관심함을 토로한 데 대해 이황이

나는 근본적으로 時事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病廢한 사람일 뿐인데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또한 君主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바로 大人의 일이니 내가 어찌 감히 담당할 수 있겠는가? 假使 大人의 才德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때를 헤아리지 않고 움직인다면, 國家에 덕됨이 없고 分義에 손해가 된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다. "(經綸은) 收用되지 않으면서 다만 顯擢의 혜택만 받게 되는 것은 진실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난 날 晦齋 李先生께서 十條疏를 올려서 嘉善大夫로 特陞하였는데, 그 疏 중의 한 가지도 채용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것이 어찌 先生의 마음이었겠는가? 오늘의 明戒로 삼을 만하다.⁷⁰⁾

라 한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이같은 이황의 현실대응자세는 선조 초 잠시 상경하였다가, 곧 이어 완전히 은퇴해버리는 행동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는 이같은 처신에 대하여 남에게

내가 都中에 있을 때 病은 더욱 심해지는 데다가 날씨가 추워져 늘 田園에 돌아가 숨어서 가만히 지내는 것을 생각하였다. ...늘 都城에서 죽는 것이 두려워 하루도 편히 자는 날이 없었다. (그러다가) 都城門을 나서니 心目이 열린 열리기에 스스로 위로하기를 이후로는 길에서 죽은들 무슨 恨이 있겠는가?⁷¹⁾

69) 禹仁秀, 앞의 『17世紀 山林의 勢力基盤과 政治的 機能』 참조.

70) 『良齋集』6, 『溪山記善錄』下.

我合下不解事 只是病廢之人而已 何能有言乎 且格君之非 正大人之事 豈我所敢當乎 假使有大人之才德 如不量時而動 則無益於國家 有損於分義 世或有言 不見用 徒蒙顯擢者誠爲可恥 往者 晦齋李先生 上十條疏 特陞嘉善 未聞採用疏中之一事 此豈先生之心乎 可爲今日之明戒也

71) 同上.

吾在都中 病益深痼 日且寒洄 每念田劃隱默...常以死於城中爲懼 未嘗一日安寢 及出都門 心目暫開 因自慰之曰 此後雖死於道中 何恨之有

라 일러 주었다. 이같이 恬退를 반복한 李滉의 현실인식이나 대응자세를 전하고 있는 글 속에는 묵시적으로 그에 공감하고 있는 李德弘의 意識과 姿勢도 함께 투영되어 있음을 感知할 수 있다. 물론 이 때 李滉이 당면하고 있던 개인적 사정은 그의 述懷가 솔직하고 현실적이었음을 대변해 준다. 그는 은퇴한 다음해에 죽었기 때문이다.

李德弘의 現實對應意識은 知行辨⁷²⁾에서도 그 한 斷面을 엿볼 수 있지만, 李浚과의 問答에도 스승의 현실대응을 옹호하는 형식으로 形象化되어 있다. 이준이 李滉의 恬退를 다소 비판적 視角에서 發論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덕홍은

나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본다면, 나의 스승께서는 스스로 道가 있다고 뽐내시지 않았고, 스스로 道를 행하려고 기약하시지도 않았으며,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고 계셔서 허물이 없기를 기약하셨다. 그러므로 세 王代를 거치는동안 네 차례 權奸을 만났으나, 才能을 숨기고 道를 지켰으며, 누구에게 依附하거나 누구를 배척하시지 않았다. (조정)에 나아가서는 물러나기를 피하셨고, 물러나서는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십시오써 病 요양과 부족한 것의 보충을 자기 본분으로 여기셨고, 敬을 지키고 義를 밝히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으셨다. 本原을 涵養하시고 優遊自足하시고 물 흐르듯 玩樂하시어서, 늙음이 장차 이름을 알지 못하셨는데, 어느 겨울에 바깥 세상을 欽慕하셨겠는가? 그러니 道로써 自足하여 세상을 鄙陋하게 여기시지 않았고, 出處의 사이에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것이다. 비록 옛 사람인들 堯·舜·伊尹·周公과 같은 君臣을 만나지 못했다면, 모두 譏侮와 困厄의辱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孔子·孟子의 시대에 君主된 사람이라 해서 모두 그들(孔孟)이 聖賢임을 꼭 알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고, 政權을 잡은 사람은 그들이 登用할 만한 인물임을 꼭 알지 못했던 것도 아니었다. 대저 마음 속으로 “이 사람으로 이 政事를 맡게 한다면, 나라가 꼭 잘 다스려지고 백성들이 꼭 편안해질 것인가?” 라 말했을 것이다. 그러니 聖賢의 出處는 時運의 盛衰에 관계되는 것이지, 人力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⁷³⁾

라 應對하였다. 요컨대, 李滉이 결코 “道에 만족해서 세상을 鄙陋하게 여긴 것이 아니고, ‘出’과 ‘處’의 사이에서 열심히 노력하였다.”는 것이고, 현실 참여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時運의 盛衰에 관계되는 것이지, 人力이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李滉이 出處의 사이에서 무던히도 고뇌하였던 것은 진퇴를 반복한 그의 생애가 웅변해 주고 있다.

72) 『同書』7, 「雜著」.

73) 『同書』7, 雜著, 「與李浚問答 丁卯」.

以愚觀之 則吾先生不以有道自許 不以行道自期 常守不足之懷 以期無過之域 是故三事聖朝 四逢權奸 而卷懷守道 不附不斥 進而謀退 退而思進 以養病保拙爲己分 以持敬明義爲己任 涵養本原 優遊厭飫 麴禮玩樂 不知老之將至 又何暇夫外慕哉 然則非以道爲足以世爲鄙 而徃勉於出處之間也 雖古之人 以道義自任 行道爲急者 若非逢堯舜伊周之君臣 則皆未免譏侮困厄之辱 孔孟之時 爲君者 未必皆不知其聖賢之人也 執政者 亦未必無知其可用者矣 其心蓋曰 以此人執此政 則國必治矣民必安矣 然而聖賢之出處 關時運之盛衰 非人力之可及矣

청년기에 학문에만 전념하던 李德弘이 때늦은 중년에 勉進하였던 것은 스승의 그같은 대응자세의 軌를 力行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일단 출사한 뒤에는 그에게 주어진 직책이 어떠한 건 간에 勉從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나름대로의 經綸을 펴려고 노력한 흔적이 있음을 볼 때, 더욱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가령 壬辰倭亂의 긴박한 상황 하에서 王世子를 扈從하면서 세자에게 禦倭策을 上書한 것이라든지, 같은 내용의 上疏와 함께 陣械圖·龜甲船圖를 올린 것⁷⁴⁾ 등을 보면, 그것이 설사 수준 높은 전문가적 識見에는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결코 壅滯된 儒士는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로써 보면, 李德弘은 전형적인 在地土族 家門에서 태어나 그의 가까운 先祖 들처럼⁷⁵⁾ 士大夫로서의 생애를 보낸 인물이었다. 곧 학문에 침잠하지만, 出仕의 기회를 결코 기피하지는 않는 유형의 선비였던 것이다. 그는 科業에 일정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赴學한 사실은 없었다. 弱冠의 나이에 李滉의 門下에 들어가 스승이 죽을 때까지 10여 년간 그의 측근에 늘 머물렀던 그리 흔하지 않는 제자 중의 하나였다. 그의 출사도 스승이 죽고난 여러 해 뒤였는데, 이 또한 스승의 出處觀과 現實對應姿勢를 體得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는 출사 후 현실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지만, 그에서 발휘된 그의 官人으로서의 역량보다는 그가 끼친 학문적 성과가 훨씬 컸다고 평가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6. 맺음말

良齋 李德弘은 李滉의 門人 중에서 비교적 긴 세월에 걸쳐 그를 가까이서 모신 高弟 중의 한 사람이다. 따라서 스승에게서 傳受한 학문적 성과도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기에 그의 學問世界나 思想體系를 살펴 보는 것은 유익한 일인 동시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바탕이자 배경이 될 그의 歷史性을 살피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역사 기록 속에 남겨진 그의 모습은 그 윤곽을 살피는 데 조차도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그가 살았던 시대를 비교적 소상하게 살핌으로써 그의 正體를 밝히는 데 보탬이 되게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이 글이 지니는 한계이기도 하다.

李德弘이 생존한 시기는 16세기 중·후반이다. 이 시기는 權臣·威臣 주도의

74) 「同書」2, 「上王世子書」 및 「上行在疏」.

75) 그의 從祖父 李賢輔는 文科에 及第한 이래, 오랜 仕宦生活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다지 前向的 對應姿勢를 보이지는 못하였지만, 職責에는 충실한 面貌를 보였다. 그리고 外職 在任期間이나 退官時에는 在地의 基盤인 鄉村의 秩序 確立과 安定에 注力한 사실을 살필 수 있다. 李秉杰, 「16世紀 前半期の 政局과 龔巖 李賢輔」 참조.

정치체제가 士林政治로 이행되어 가던 때였다. 成宗 중엽 勳舊派의 대응세력으로 역사 속에 그 모습을 드러낸 士林派는 양자 간의 대립·갈등 속에서 여러 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도 그 성장을 지속하고 있었다. 그것은 왕조의 건국이념이자 통치이념 자체가 性理學에 그 기반을 두고 있었고, 사림파는 바로 그 성리학적 이념과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고 堯·舜·三代의 '至治'를 재현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李德弘이 태어난 中宗 36년(1541)은 사림파가 권척세력에 의해 크게 견제를 받고 있던 시기였다.

그가 李滉의 문하에 들어가 스승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受學한 것은 明宗의 친정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앞 시기에 비해 사림파의 중앙관계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수준이 높아지고 그 보급범위도 넓어져 가던 시기였다. 나아가서 宣祖의 즉위와 함께 己卯士禍·乙巳士禍 희생자들이 赦免·復權되거나 復職되고 몰수된 家産이 還給되는 등 士林政治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그가 스승의 사후 몇 년 지나 出仕한 시기는 大臣 중심의 정치 운영이 終焉을 고하고 新進士類 주도의 士林政治가 궤도에 오르던 때였고, 그가 退官한 시기는 사림정치가 朋黨政治로의 轉換 조짐을 띠어 가던 때였다. 그리고 그는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서 壬辰倭亂이란 국난을 겪기도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그가 거친 官歷은 당시 '遺逸'로서 정소된 인물들이 일반적으로 거쳤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후일 '山林'의 대우 수준에는 더더욱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그는 그같은 微官末職을 굳이 마다 하지 않고 勉從하였고, 상황에 따라 스스로의 경륜을 펴 보려고 노력도 하였다. 이 점은 "從行從直從心"하라고 일깨운 스승의 뜻에 부응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는 仕宦에만 매달리던 권척세력이나 학문보다는 사환에 더 기울고 있던 사림계 일부 인물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爲學'·'修己'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지만, '治人' 곧 出仕를 완전히 배격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했기에 그의 학문적 성과는 상당한 質量으로 그의 文集 속에 남아, 그의 사상체계와 이황 門徒 내에서의 位相, 나아가서 嶺南學派 내에서의 位相을 가늠하게 한다. 그러나 그에 비해, 그가 역사 속에 남긴 足迹은 그의 宦跡과 現實對應意識 및 姿勢에서 드러나듯이, 그리 뚜렷하지도 않고 독특한 성향을 지닌 것도 아니어서, 역사 상의 한 인물로서의 그의 모습을 구성하는 작업을 어렵게 만든다. 이는 史料의 부족으로 인한 한계인바, 추후 새로운 기록들이 발굴되어 그의 올바른 모습과 함께 역사적 위상을 보다 선명하게 밝힐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